

기생충교실

요충

증세

요충이 항문주위로 나와서 그 부분을 자극하기 때문에 몹시 가려워진다. 이런 증상은 어린이에게 현저하며, 가려움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신경질이 되는 수가 많다. 또 무의식적으로 가려운 부분을 손으로 긁기 때문에 염증을 일으키고 때로는 세균의 2차감염 등으로 습진이 생기는 수도 있다.

여아에 있어서는 요충이 질에 침입하여 질염을 일으키기도 한다. 또 항문을 긁던 손가락을 입으로 빨때는 알이 다시 입속으로 들어가게 되며 특히 어린이는 어른보다 많은 수가 감염되며 고통도 심하다.

감염방지(예방)

감염자의 내의 침구 등 취급에 주의하고 세탁물은 삶아서 쓰고 감염자 한사람만 치료를 받을 것이 아니라 전 가족이 치료를 받도록 한다.

항문 주위는 깨끗이 씻고 손대고 긁지 않도록 하며 손톱은 짧게 깎고 항상 깨끗이 씻어야 한다.

치료(구충)

요충 구제법에는 경구적으로 구충제를 복용하는 것과 관장을 하여 적당한 약제를 국소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요충은 기생부가 맹장 및 대장 부위이므로 약제가 도달하기 곤란한 곳에 기생하고 있어서 치료에 많은 애로를 느낀다.

그외 약제로는 「젠치아나 바이오렛」을 과거에 많이 사용하였는데 부작용이 있는 것이 단점이다.



(p. 43에서)

다.

한가지 조기매독환자들이 유의할 것은 치료시기를 놓쳐 만기잠복매독으로 접어들면 치료를 아무리 받더라도 혈청검사가 음성화되질 않고 일생동안 매독에 걸렸던 전과기록(前科記錄)이 남아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해외취업, 이민 등 사회활동에 적지않는 지장을 준다. 매독의 조기발견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필자=곽대희 비뇨기과의원장·의박)